



## 기러기 엄마의 교회 여가 활동을 통한 미국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윤영선<sup>1</sup> · 이성철<sup>2</sup> · 이문진<sup>3</sup>

<sup>1</sup>대진대학교 · <sup>2</sup>수원대학교 · <sup>3</sup>서울교육대학교

### A Study on Adjustment of Kirogi Mothers Participating in Church Leisure Activity

Yoon, Young-Sun<sup>1</sup> · Lee, Sung Chull<sup>2</sup> · Lee, Munjin<sup>3</sup>

<sup>1</sup>Daejin University · <sup>2</sup>Suwon University · <sup>3</sup>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hardships of separated families by analyzing adjustment of Kirogi Mothers participating in church leisure activity. Phenomenological approach, a qualitative method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Because phenomenological method asks hermeneutic questions in order to understand and uncover hidden meanings of social phenomena, it is suitable to look at Kirogi Mothers experience of church leisure and understand its effect on adapting separated life. The researcher extracted themes from the in-depth interview data and construct relationships between the themes. As a result, two main themes emerged from Kirogi Mothers accultu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church leisure activity. The first main theme was church leisure activity and consists of three sub-themes, which are participation motivation, passive particip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The second main theme was acculturation to the U.S. and consists of sub-themes such as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relationship with children, and self-realization/self-actualization. The result suggests that church leisure activity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Kirogi Mothers acculturation process in the U.S. and it also contributes to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and children along with self-realization and self-actualization.

**Key words :** kirogi mothers, church leisure activity, adapting to American culture, adjustment

주요어 : 기러기 엄마, 교회 여가 활동, 미국문화 적응, 조절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Mun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96, Seochojunga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REDACTED], E-mail: sky99722@hotmail.com

Received: October, 30, 2019 Revised: November, 28, 2019 Accepted: December, 18, 201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학교폭력과 왕따, 평준화된 교육의 질의 저하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무리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실업의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과 국제화 흐름의 속에서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통한 대리 만족적 욕구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조기 유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처음엔 영어권 국가로 자녀들만 유학을 보냈다가 자녀들의 현지 부적응 또는 탈선 등의 문제로 엄마까지 건너가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게 되면서 생긴 기러기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기러기가족이란 엄마와 자녀는 교육을 위해 외국에서 생활하고 아빠는 한국에 혼자 남아 유학중인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Shin, 2010).

조기 유학의 확산과 더불어 생겨난 이러한 한국의 기러기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기러기엄마들이 주로 이주하는 국가에서도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기러기엄마들은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남편의 자리인 가장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그들은 불안, 위축됨, 소외감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자녀들 역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가운데 정체성 혼란의 위기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Byun, 2010). 한국에 홀로 남겨진 기러기아빠들 역시 물리적 거리감이 정서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가족과의 유대 약화, 혼자 남겨진 외로움과 유학

비를 조달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최양숙, 2005).

이러한 기러기가족의 문제들에 주목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조기 유학과 관련되어 형성된 기러기가족에 대한 연구(Shin, 2010; Yeom, 2008), 기러기아빠의 심리적인 외로움과 가사일의 어려움, 외도의 유혹에 대한 연구(김성숙, 2006;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엄명용, 2002; 최양숙, 2008), 낯선 땅에서 홀로 자녀교육을 담당하며 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 기러기엄마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김경화, 2010; 김선미, 2007, 2009; 윤은경, 신성희, 2010; Lee, 2010), 분거가족 형태로서의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이여봉, 2006; 조은숙, 2010; Ahn, 2009),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기러기가족에 대한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의 연구(김기화, 양성은, 2012)와 구조가족치료 모델관점에서 고찰한 연구(김희정, 최연실, 2012) 등이 있다.

기러기가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은 주로 한국의 과열된 교육열에 대한 사회 현상적인 문제와 새로운 환경과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분거가족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만 주로 초점화 되어 있고 분거 가족 중 기러기엄마의 적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가족중심이나 혹은 부부중심의 한국 이민교회에서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남편을 버려두고 홀로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의 기러기엄마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기에, 기독교인 기러기엄마들은 교회 내에서도 오히려 소외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례도 나타난다(Ahn, 2009). 하지만 오히려 유학생생활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교회 여가 활동을 통해 친구들을 더 쉽게 사귀고, 미국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Suh, 2014). 기러기 생활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분거 기간 동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러기엄마들에게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고, 한국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들을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의 핵심은 인터뷰나 글쓰기 형태의 철저한 분석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의도한 연구의 방향을 구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는 기러기엄마의 교회 여가활동을 통한 미국 문화 적응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러기엄마의 생활을 이해하고 분거가족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적응을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현상학적 방법은 해석학적 질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으로 기러기엄마의 교회여가 경험을 이해하고 기러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기러기엄마들의 교회여가 경험과 미국문화 적응과정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번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세심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특정 기준을 가지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최영신, 1999). 이러한 대상자 선정의 원칙 아래 본 연구의 참여자는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6명의 기러기엄마들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미국에서 거주한지 3년 이상 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연구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연구자의 지인이 그곳에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기에 연구 참여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 연구자 본인 또한 그곳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에 쉽게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과 교회예배가 끝난 후나 혹은 야외활동을 함께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면접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여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자료수집을 원활히 이루고자 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연령	분거기간	자녀수(나이)	남편직업
A	44	4년	2명(10, 8)	자영업
B	49	6년	2명(13, 11)	자영업
C	45	3년	2명(15, 10)	회사원
D	48	4년	2명(12, 8)	의사
E	49	7년	1명(14)	교수
F	50	7년	2명(18, 15)	교수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한 달간 연구 참여자 6명으로부터 개방형 설문지를 받았다. 이 개방형 설문지를 바탕으로 사전에 수집된 문헌 자료들을 비교해서 심층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도중에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 동의서’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동의를 얻고 서명을 받았다. 면담방식으로는 1차면담에서는 비 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했으며, 2차면담에서는 구조화된 면담방식을 취해서 연구 방향을 좁혀 나갔다. 면담장소로는 주로 교회활동이 끝나고 근처 커피숍에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각 면담 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차면담 후에도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생기면 연락을 하여 추가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이 메일로 필요한 자료들을 받았다. 연구자는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산출하고 이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러기 엄마의 교회 여가활동을 통한 미국문화 적응과정에서 두 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가지 주제는 교회여가활동과 미국문화적응으로 첫 번째 상위범주인 교회여가활동은 참여 계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이렇게 세 가지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두 번째 상위범주인 미국문화적응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자아 성장 및 발견이라는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 4.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 기러기 엄마의 교회 여가 활동을 통한 미국 문화 적응과정 분석이라는 주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참여자들에 이르기까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여가학 전공 박사 2명으로부터의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하고, 연구 참여자들로 부터는 자료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검토(member check)를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상황에 대한 지속

적인 관여(prolonged involvement)를 하며, 다양한 연구 방법과 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삼각법(triangulation)을 이용한다. 연구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료 분석 후의 글쓰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확인절차를 걸쳤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연구 기간 내내 연구자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하여 고려하고자 하였다.

### Ⅲ. 결과 및 논의

#### 1. 교회 여가 활동

표 2. 교회여가활동에 관한 개념어 및 개념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어
교회 여가 활동	참여 계기	의지할 곳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정보가 부족하니깐, 친구가 필요해서
	소극적 참여	기러기엄마에 대한 편견과 오해, 수근 거림이 싫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위축감, 스스로 고립됨
	적극적 참여	진심으로 대해줌, 서로 비슷한 처지, 사회적·정서적 지지를 받음, 교회에 정이 들음, 마음의 문을 열게 됨

##### 1) 참여계기

기러기엄마들에게 미국 땅은 낯선 곳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도움을 받기 위해 한인교회를 알아본 사람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콜럼버스 오하이오는 LA처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곳을 택하여 자녀를 유학시킨 학부모들도 많았다. 학교에서 한국아이들을 마주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에서 이들은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들 또한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원했다. 이들은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회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교환교수로 오하이오 주립대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만 믿고 있다가 이래서는 우리 모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먼저 한인교회를 알아보게 되었죠. 남편은 1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와 아이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하고 싶었어요(연구 참여자 F).

큰 형님네 가족이 미국에 먼저 오셔서 정착을 하시고,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곳에 온 거니까 많이 낯설고 가족이니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했죠(연구 참여자 B).

## 2) 소극적 참여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에 한인교회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것은 한국 이민사회에서 기러기엄마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편은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고, 본인들은 여기서 편하게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평범한 가정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처음에는 오히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인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려워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 고립되거나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저만의 커리어도 있고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 오니깐 정말 낮은 땅이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힘들어서 교회에 많이 의지했죠. 그런데

다니다보니 처음엔 제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편견이 있더라고요. 이민자분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고지식하고 의심도 많은 거 같아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자신을 발견하곤 해서 우울했죠(연구 참여자 A).

사람들이 내색은 안 해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편하게 쓰면서 애들 키운다고 생각해요. 사실 미국에 와서 저 혼자 엄마 역할 뿐만 아니라 아빠역할도 해야 하는 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 편한 시선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구역모임이나 자치회 활동도 혼자 해야 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위축감이 들었죠(연구 참여자 C).

## 3) 적극적 참여

처음에는 교회 여가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던 참여자들도 꾸준히 구역모임이나 성경공부 같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교회 구성원들 중 기러기 엄마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환영해주는 분들도 있어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기러기 엄마들과의 만남은 서로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나누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지기도 하였다. 교회 분위기에 익숙해진 이들은 찬양대나 새 가족모임, 성경공부 등 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스스로 교회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자신감도 생기고 자녀 양육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다행히 집근처에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시고, 아이들 학교나 공부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낮은 미국 땅에 와서 아이들 혼자 키우면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난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덕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영적으로 믿음도 성숙해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D).

교회에 저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기러기 엄마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누었죠. 물론 교회활동도 같이 하면서 찬양대나, 성경공부 모임도 나가고.....애들 혼자 키우면서 힘든 점을 교회활동 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연구 참여자 E).

## 2. 미국문화 적응

표 3. 미국문화적응에 관한 개념어 및 개념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어
미국 문화 적응	부부 관계	대화가 많아짐, 서로에 대한 그리움, 물리적 거리감, 문화적 차이, 대화 주제 단절
	자녀 관계	서로에게 의지함, 유대감 형성, 문화차이, 자녀의 반항과 사춘기, 자녀의 독립성
	자아성장 및 발견	자신의 정체성 혼란 극복, 삶의 의미 및 영적 생활에서 찾음, 긍정적인 자아성립

### 1) 부부관계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하여 자주 볼 수 없으니 전화통화를 자주하는 부부들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매일 통화를 하다가 점차 통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각자 서로의 관심사와 생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고, 그로 인한 서의 괴리감만 커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는 부부도 볼 수 있었다. 그들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교회여가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다른 이민자들의 가정과 부부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고, 자신에게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에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참여자는 오히려 교회여가 활동을 통한 이민가족들과의 만남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단절과 남편의 그리움만 키우게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에 한 1년은 그래도 자주 연락했어요. 거의 매일 연락했는데 점차 대화 주제도 매일 반복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적어지니깐 연락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휴가를 길게 내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한국으로 가서 보는 경우가 많죠. 역시 부부는 같이 살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혼한 사람을 제외하곤 부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이 제일 부러웠어요(연구 참여자 C).

그래도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다른 가정에 비해 자주 볼 수 있는 편이에요. 남편이 미국에 와 있는 동안은 같이 교회도 나가고 성경공부도 같이하고.....저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남편도 같이 와서 살면 좋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깐.....그래도 이렇게나마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아무래도 저희같이 기러기 엄마, 아빠로 사는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 2) 자녀관계

여기서 말하는 자녀관계는 함께 거주하는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엄마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보다 영어실력이 부족한 엄마는 아무래도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또한 자녀도 낯선 곳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로 엄마를 선택했다는 연구 참여자의 자녀도 있었다. 반면, 모성보호 사회에 익숙한 한국과 달리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적응한 자녀는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참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자녀와 함께 교회생활을 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구역모임이나 자치회 모임 같은 교회여가 활동을 통해 서로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자녀보다는 엄마의 노력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들고 예민한 시기인 자녀들

을 기러기 엄마들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잘 극복하는 방법으로 교회 지인들과의 교류 및 한국에 있는 남편과의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다.

제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영어실력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쇼핑이나 기타 전문 영어가 필요할 때는 아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죠.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커요(연구 참여자 F).

저희 아이들이 여기 처음에 왔을 때 1~2년 정도는 그래도 엄마 혼자 고생한다고 많이 위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사춘기가 왔는지 많이 예민해요. 아무래도 아들은 아빠가 함께 있어야할 시기에 아빠가 없으니, 남자 아이의 감정을 여자인 엄마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미국문화가 개인주의적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려는 것은 좋은데 좀 많이 컸다고 해야 할까? 떨어진 느낌이라 가끔 걱정이 되요(연구 참여자 C).

### 3) 자아성장 및 발견

기러기엄마들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자녀가 성장할수록 아빠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했고, 이를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웠다고 한다. 이때, 교회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상담을 받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믿음 생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활동을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미국문화 적응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지만, 교회 또한 인간관계의 연속이라 그 속에서 피치 못할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생활의 긍정적인 부분이 더욱 크기에 교회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점차 자신이 잘 적응하고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삶의 자아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제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 남편에게 매일 하소연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아이들을 위해서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만 힘들었어요. 그때 교회 집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죠. 다행이 좋은 분을 만났고 그 분 덕분에 교회생활도 잘하고 아이들도 이만큼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아시잖아요. 여기 이민자들 기러기엄마에 대한 편견이 심한거....남편 돈 쓰러 편하게 살려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시선 의식하지 않고 교회활동 열심히 하고 늘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게 통했는지 지금은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처음에 어떻게 대처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연구 참여자 B)

### 3. 논의

본 연구는 기러기엄마의 교회 여가활동을 통한 미국 문화 적응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러기엄마의 생활을 이해하고 분거가족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적응을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여가활동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다 점차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에 오면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 때 미국 한인 교회를 다니게 된다. 아무래도 미국사회에서 교회만큼 네트워크 연결이 잘되어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자 가정이 가지는 기러기엄마에 대한 편견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같은 기러기엄마들과의 공유와 교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지인들 덕분에 기러기엄마들

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가 점차 적극적으로 교회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Nowen(1996)의 영적성장 세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엔 외로움을 통해 깊은 자아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 단계는 고요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을 해체하고 받아들이며, 마지막에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환대를 통해 낯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장소를 제공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며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한다. 이처럼 교회여가 활동은 중년의 나이에 낯선 땅에 정착한 기러기엄마들에게 잘 적용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문화 적응과정에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교회여가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자아 성장 및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에 홀로 자녀를 데리고 오면서 본인 혼자 남편의 역할까지 해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관계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심리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여가활동을 통해 교인들과의 만남과 정보 공유, 자녀와의 교회행사 참여 등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고, 그 속에서 본인 스스로 자아성장과 새로운 자아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학업이 끝나도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노후를 미국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기러기엄마들의 미국 생활은 학업이나 취미생활, 그리고 새로운 관계형성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통하여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기발현이 가능해졌고 그러한 성취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발견하였고,

고단한 기러기생활 중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 믿음 생활의 중요성 및 목회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한 논문(Lee, 2010)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기러기생활 중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 자아성장과 자기성취까지 이루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자신의 중심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삶으로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연구결과(신명숙, 2010)와도 비슷하다. 이처럼 교회의 예배나 소모임, 기타 교회여가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고 그들의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소외된 기러기엄마들에게 권해 줄 수 있는 좋은 장소임은 분명하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기러기엄마의 교회 여가활동을 통한 미국 문화 적응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러기엄마의 생활을 이해하고 분거가족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적응을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해석학적 질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으로 기러기엄마의 교회여가 경험을 이해하고 기러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분석 결과 기러기엄마의 교회 여가활동을 통한 미국문화 적응과정에서 두 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가지 주제는 교회여가활동과 미국문화적응으로 첫 번째 상위범주인 교회여가활동은 참여계기, 소



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이렇게 세 가지 하위 범주가 추출되었다. 두 번째 상위범주인 미국 문화적응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자아 성장 및 발견이라는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여가활동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의지할 곳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친구가 필요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이들은 교회여가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기러기엄마에 대한 편견과 오해’, ‘수근거림이 싫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위축감’, ‘스스로 고립됨’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점차 교회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는 ‘진심으로 대해줌’, ‘서로 비슷한 처지’, ‘사회적·정서적 지지를 받음’, ‘교회에 정이 들음’, ‘마음의 문을 열게 됨’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문화에 적응하면서 부부관계에도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대화가 많아짐’, ‘서로에 대한 그리움’, ‘물리적 거리감’, ‘문화적 차이’, ‘대화주제 단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서로에게 의지함’, ‘유대감 형성’, ‘문화차이’, ‘자녀의 반항과 사춘기’, ‘자녀의 독립성’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아성장 및 발견을 하는데 있어 교회여가 활동이 큰 힘이 되었고, 이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극복’, ‘삶의 의미를 영적 생활에서 찾음’, ‘긍정적인 자아성립’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그림 1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기러기엄마로 지내고 있거나 자녀 유학을 위해 기러기엄마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미국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가 성공적인 자녀교육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러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많은 기러기 엄마들이 교회여가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기러기엄마로서의 힘든 삶을 살고 있거나 준비 중인 엄마들에게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2.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러기엄마들이 미국문화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제약요소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기러기엄마들이 미국문화에 적응하면서 제약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하여 기러기엄마의 교회여가활동을 통한 미국문화 적응 과정을 분석하였으나, 이 연구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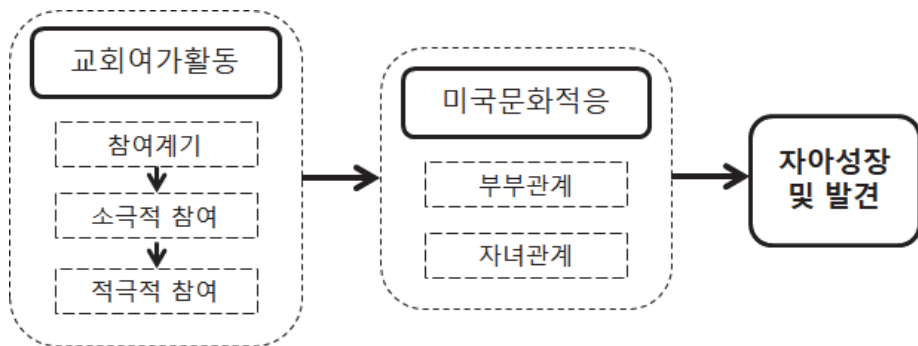


그림 1. 기러기엄마의 교회여가활동을 통한 미국문화적응과정

부 지역 및 소수에 한정된 연구에 불과하므로 연구 결과를 표준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러기엄마의 교회여가활동을 통한 미국문화 적응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양적 연구의 진행도 함께 이루어지면 기러기엄마의 미국문화적응에 교회여가활동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화 (2010). 재미 기러기 어머니의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11-239.
- 김기화, 양성은 (2012). 기러기가족의 분거 경험에 관한 사회교환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50(2), 11-23.
- 김선미 (2007). 재미 국제 장기 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기러기 엄마' 기 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171-189.
- 김선미 (2009). '기러기 엄마로 살기': 일상생활의 구성 그리고 관계 맺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41-59.
- 김성숙 (2006).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기러기아빠의 분거 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07-133.
- 김희정, 최연실 (2012). 자녀 해외유학 '기러기가족'의 가족구조 분석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관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6), 2965-2986.
- 신명숙 (2010). 한국 사회문화와 여성을 위한 기독교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151-186.
- 엄명용 (2002). 장기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25-43.
- 윤은경, 신성희 (2010).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에 의한 기러기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초기, 후기 청소년과 엄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40(5), 620-630.
- 이여봉 (2006). *탈근대의 가족들: 다양성, 아픔, 그리고 희망*. 서울: 양서원.
- 조은숙 (2010). 초국적 가족의 분거와 순차적 이민을 통한 재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체계 변화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91-115.
- 최양숙 (2005). *비동거 가족경험: '기러기아빠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양숙 (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67-97.
- Ahn, K. (2009). *South Korean transnational mothers: familism, cultural criticism and education project.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Maxwell School of Syracuse University.
- Lee, H. (2010). 'I am a Kirogi Mother': education exodus and life transformation among Korean transnational women.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9, 250-264.
- Lee, S. (2010). Pastoral Care with Korean Goose Moms. In J. Stevenson-Moessner & T. Snorton (Eds.). *Women out of order: risking change and creating care in a multicultural world* (pp. 173-194). Minneapolis: Fortress Press.
- Nowen, H. (1996).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New York: Doubleday.
- Shin, H. (2010). *'Gireogi Gajok': transnationalism and language learning*. Unpublished

-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Suh, K. (2014). *(The) role of church leisure activities on the cultural adjustment process of korean early-grade students in the U.S.A.*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 Yeom, J. (2008). Composing life as a Korean Goose Mother: a narrative inquiry into Sue's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266-277.